

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세출효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

지방재정분석 결과 총평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상황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
 - 지방재정분석 32개 세부지표 중에서 최근 5년 실적대비 19개 지표가 개선
- 재정건전성의 경우 2014년 결산에서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5년 결산에서도 상당히 개선
 - 2015년 분석 결과, 건전성 분석지표 9개 중에서 신규지표인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제외하고 2014년 대비 8개(통합재정수지비율, 실질수지비율, 경상수지비율, 관리채무비율, 실질채무비율, 환급자산대비부채비율, 공기업부채비율,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) 지표 모두가 개선되어 전체 재정건전성이 향상
- 반면 재정효율성의 경우 세입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출효율성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
 -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효율성의 경우 체납액은 다소 증가하였지만, 세입실적 대비 체납누계액의 비중을 의미하는 체납액관리비율은 지방세, 세외수입 모두 개선
 - 한편 세출효율성의 경우 출자출연전출금,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관련 지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준액보다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미흡

재정건전성 분야

- 재정수지 부문의 지속적 개선
 - 재정수지 부문에서는 통합재정수지, 실질수지, 경상수지 모두 개선된 실적을 보임
 - 이는 사회복지비 지출(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예산, 무상보육 등)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민간보조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지방소비세의 대폭 인상과 2014년도 이후의 각종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세입부문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
- 채무관리의 양호한 실적
 - 채무관리는 채무규모와 채무비율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채무관리를 대표하는 지표인 관리채무비율은 2013년 13.32%, 2014년 12.59%에서 2015년 10.98%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
 -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 노력과 채무상환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인 것으로 분석
- 지방공기업 부채의 하락
 - 지방공기업 부문의 재정건전성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노력에 따라 공기업 부채비율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
 - 공기업 부채비율: 74.09%('13년) → 70.93%('14년) → 65.07%('15년)
 - 영업이익은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결산에서는 흑자로 전환
 - ※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: -0.60%('13년) → -0.82%('14년) → 1.85%('15년)

〈재정건전성 분석 결과〉

재정분석지표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1. 통합재정수지비율	-9.89%	-1.40%	1.84%	2.31%	2.19%	3.88%	5.73%
2. 실질수지비율	6.84%	6.79%	8.08%	7.55%	7.70%	13.22%	15.42%
3. 경상수지비율	74.82%	70.73%	68.78%	70.11%	71.51%	69.76%	68.34%
4. 관리채무비율				13.35%	13.32%	12.59%	10.98%
5. 실질채무비율						11.19%	9.98%
6. 환급자산대비 부채비율				69.22%	67.37%	66.75%	59.73%
7. 통합유동부채비율							27.97%
8. 공기업부채비율				160.65%	74.09%	70.93%	65.07%
9.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				-0.36%	-0.60%	-0.82%	1.85%

재정효율성 분야

- 양호한 세입실적
 -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세입 비율은 2009년 25.19%에서 2011년 29.28%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28.05%, 2013년 26.35%로 하락하였으나, 2014년 27.96%, 2015년 결산은 29.59%로 재정자립 수준이 상향
 -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%에서 11%로 6%p 인상되었으며,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(기존의 소득세-법인세 납부세액의 10%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'지방소득세 소득분'을 '지방소득세'라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)와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도 일정부분 지방세수의 증가에 영향을 줌
 -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의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취득세 수익도 상당히 증가
 - 세부지표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징수율, 체납액관리비율(지방세, 세외수입), 탄력세율적용노력도, 경상세외수입증감률이 상승

〈재정효율성 분석 결과: 세입효율〉

재정분석지표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10. 자체세입비율	25.19%	28.79%	29.28%	28.05%	26.35%	27.96%	29.59%
10-1. 자체세입비율증감률	-0.53%	5.85%	6.90%	3.65%	0.65%	6.09%	4.33%
11. 지방세징수율	96.32%	96.08%	96.69%	95.63%	96.80%	97.16%	97.22%
11-1. 지방세징수율제고율	1.0002	0.9981	1.0063	0.9963	1.0049	1.0037	0.9992
12.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						2.11%	1.99%
12-1. 지방세체납액증감률					4.00%	2.94%	29.40%
13. 경상세외수입비율						1.92%	1.83%
13-1. 경상세외수입증감률					6.12%	4.70%	5.70%
14.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						1.51%	1.33%
14-1.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					1.20%	-1.96%	7.79%
15. 탄력세율 적용노력도	0.9974	0.9978	0.997	0.9981	0.9981	0.9983	1.0010

○ 다소 부족한 세출관리

- 세출관리 측면에서는 인건비절감, 민간위탁금 등이 개선되었으나,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어 세출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
- 인건비 절감노력도가 2014년 -0.0091에서 2015년에 0.0157로 개선되었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은 2014년 -1.37%에서 2015년 결산에서는 -7.16%로 개선
- 지방보조금증감률은 2014년 6.09%에서 2015년 결산에서는 0.29%로 개선
-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은 2014년 6.77%에서 2015년에 4.05%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폭이 감소
- 2009년~2011년 세출결산의 4% 수준이던 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이 2012년 8.18%, 2013년 8.37%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, 2014년 8.54%, 2015년에는 7.86%로 감소

〈재정효율성 분석 결과: 세출효율〉

재정분석지표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16. 지방보조금비율	4.17%	4.30%	4.88%	8.18%	8.37%	8.54%	7.86%
16-1. 지방보조금증감률				13.81%	9.86%	6.09%	0.29%
17. 출자출연전출금비율				2.60%	2.66%	2.41%	2.65%
17-1.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				1.19%	8.94%	-7.46%	19.34%
18.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	1.74%	1.50%	1.50%	4.83%	5.21%	5.20%	5.08%
18-1.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				13.14%	12.02%	6.77%	4.05%
19. 인건비 절감노력도	-0.0035	0.0276	0.0094	-0.0034	0.0061	-0.0091	0.0157
20.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	0.1432	0.1334	0.0849	0.0851	0.1175	0.1313	0.0827
21.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	0.1502	0.2058	0.1966	0.1931	0.2073	0.2105	0.1900
22. 행사축제경비비율	0.45%	0.52%	0.45%	0.47%	0.46%	0.43%	0.44%
22-1.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	-16.51%	7.47%	-6.31%	3.21%	-1.53%	-7.59%	6.28%
23.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						-1.37%	-7.16%

정책제언

-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
 - 건전성 지표의 경우 지표 모두 회복 또는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계적 관리가 필요
- 체납액관리 강화를 통한 세입효율성 제고
 - 세입관리에 있어 자체세입확보와 지방세징수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체납증감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세입여건 안정화를 위한 체납액 관리의 강화가 필요
- 세출관리 강화를 통한 세출효율성 제고
 - 분석결과 출자출연전출금,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증가되었으며,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절감노력이 전년 대비 저하되었음
 -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절약, 재정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 재정지출의 건전화와 효율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
-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
 - 지방재정의 확충하고 경비절감과 예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
 - 향후 세입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성장과 신축보다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

▶ 본문보기 :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(종합보고서, 통계보고서, 단체별보고서)

▶ 내용문의 : 윤태섭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, tsyoon@krila.re.kr, 033-769-9871)

자녀호 보기 :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-지방 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(주재복 연구위원) [원문보기](#)

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